안일주의 벗어나 스스로 실천하는 자세 선결

관권선거 규탄집회를 다녀와서

"관권선거 자행속에 중립내각 기만이다 노태우 정권 타도하자."

"보수정치 갈아엎고 민중대통령 추대하여 민중정치 실현하자." 지난 9월30일, 이런 구호들을 외치며 한국 외국어 대학교 노천극장으로 들어 섰을때 가장 먼저 볼 수 있었던 것은 "관권선거 규탄 및 민중의 정치실현과 민중대통령 추대를 위한 학생 추진위원회 투쟁 선포식"이라 쓰인 붉은 깃발이었다.

이 집회는 동총련 지역 학추위 사람들과 수원지역 학추위사람들이 모여 갖는 관권선거 규탄집회였다.

사실 관권선거에 대한 보도를 처음 대했을 때 난 그저 막연히 없어져야겠지 하는 정도의 생각에 지나지 않았었다. 하지만 집회를 준비하면서 또 집회를 치루는 과정에서 피연 나는 관권선거를 없애기 위해 무엇을 하였던가 나 자신이 관권선거퇴치를 위해 그 어떤 일도 하지 않은채 어떻게 개 그것이 없어지기를 바랄 수 있겠는가 하는 자책이 나를 새롭게 했다.

비록 시소한 일일지라도 나 스스로가 먼저 하나씩 실천해 나갈 때만이 비로소 관권선거 폐지도 민중대통령도 그리고 더 나아가 민중정치도 실현될 수 있을 것이다.

하지만 민중대통령이라는 것, 그리고 민중정치라는 것이 나에게 있어서는 아직 생소한 감이 없지 않아 있었다. 물론 내 자신에게도 문제가 있었지만, 집회에 앞서 사전 준비가 미흡해 못내 아쉬웠다.

그 집회는 내게 있어 소중한 경험이었기에 4~5백명 정도 밖에 참여하지 않았다는 점이 그만큼 날 실망시켰다. 병백히 그날 집회는 정당한 것이었고 필요한 실천적 행동이었다. 그리고 이 생각에는 거의 모든 시람들이 동의할 것이다.

그러나 참가자 수는 겨우 4~5백명이라니, 어디에서부터 문제가 있는지, 또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나의 행동은 어떠해야 하는지는 그날 이후 내 고민의 과제로 넘겨져 있다. 그날 집회 과정에서 가장 기억에 남는 것은 청량1동 철거지구에 관한 얘기다. 내 주위의 여러 친구들에게, 내가 아는 모든 이들에게 그날 사회지의 말을 전하고 싶다.

"당신이 당신 자신나름대로의 생활속에서 안일함에 빠져 있을 때에도 그리고 지금 이순간에도 또 오늘밤에도 그곳 철거민들은 그들의 생존을 위해 규탄을 서야만 한다."

노 상 민
〈철학·1〉

생명본질의 저울될 수 없는 '낙태'

사회구조문제 선결이 관건될 듯

학교 곳곳에서 낙태의 부담함을 알리는 플랭카드·대자보를 흔히 볼 수 있다. 지난 학년는 과연 낙태가 부담한 것인가하는 문제를 다시 한번 생각하게 하였다.

물론 가족계획 차원에서 발생하는 낙태는 부담하다는 점에 동의한다.

그러나, 기형아·사회문제·어머니의 건강문제로 발생하는 낙태가 과연 생명의 본질 파악 부재에 기인하는 짓일까.

기형으로 태어난 아이는 세상 사람들의 구경거리가 되어 '왜 날 태어나게 했어' 외치며 마지못해 살아갈 지 모른다.

'나의 목숨이냐, 아기의 목숨이냐'라는 선택의 길에 서 있을 때 '나'의 목숨을 선택한다면 우리는 그 여자를 욕할 수 있을까.

얼마 전 청량리 시장, 여자 화장실 변기 속에서 우는, 탯줄을 끊어서인지 피 묻은 아기가 발견된 이야기를 들을 수 있었다.

왜 그런 이야기가 들려질 수 밖에 없는 것일까.

그 아이는 외진 곳에 태어나서 그대로 차갑게 변해버릴지 모른다. 그 아이는 커서 희의를 느끼며 살아갈지 모른다.

이런 것들이 생명의 본질을 파악한 것인가

이런 사회 구조적 문제해결 없이 낙태는 과연 부담하다고만 할 수 있는 것인가.

낙태의 부담함을 주장하기 전에 이런문제해결 방안이 제시되야하지 않을까하는 문제를 감히 던져본다.

이 도 학
〈정외·1〉

오도된 민주주의 성숙된 의식필요

학내 대자보 찢는 사례 빈번해

며칠전 중앙대자보판에 "찢긴 플랭카드의 슬픔"이라는 대자보가 붙었다. 경희대 대선 준비모 앞에서 붙인 플랭카드가 갈갈진지 이틀만에 갈기갈기 찢어진 채 나붙게된다는 것을 고발하는 내용으로 공정방송을 지지하자는 외침은 한낮 공허한 메아리에 불과했는가라고 반문하는 글이었다.

사실 학내의 여러 대자보가 그 누군가에 의해서 찢겨지고 훼손되는 경우를 놓고 감정싸움까지 벌어진 사례는 많다.

지기 주장과 맞지 않는다 하여 뜯어버리는 경우를 놓고 감정싸움까지 번진 사례는 많다.

우리는 혼히들 자기의 주장과 의견은 자유로이 말할 권리가 있으며 또 그러한 권리를 인정하는 것이 바로 민주주의라고 이야기한다. 하지만 아직도 우리의 생활속에서 비민주주적인 면들을 볼 수 있는 사건들이 많이 일어나고 있다.

곧 총학선거를 비롯하여 각 단대·과의 선거가 있게 된다.

대자보와 유인물 또한 쏟아져 나올 것이다. 붙이고 찢고 하는 악순환은 더이상 있어서는 안될 것이다.

우리들의 민주적이고 성숙된 모습을 보이면서 깨끗한 선거를 치렀으면 한다.

이 은 희
〈문리대 영문·1〉

학교기물 무분별 방치상태

학생들의 주인의식 요구 절실

아침 등교길에 헐떡고개를 올라 강의실로 가다보면 이해할 수 없는 광경이 종종 눈앞에서 벌어지곤 한다.

어느 동아리나 학생회에서 사용했던 것인지는 몰라도 책상이나 의자가 그대로 노천극장주변에 버려져 있는 모습을 어렵지 않게 발견할 수 있다. 지난 23일에는 중앙대자보판 앞에서 책상 두개가 하루종일 내리는 비를 그대로 맞고 있었다. 가장 많은 학생들이 지나다니는 길목에 불쌍 사납게 비에 흠뻑젖어 방치되어 있었던 것이다. 이번달 초에 열렸던 지주경희제에서도 소속을 알 수 없는 책상이 김밥판매대로 변신하거나 또 행사기간이 지난 2,3일후까지도 두세개의 책상이 노천극장 주위에 버려져 있었다.

이런 모습들을 잠깐의 실수라 변명할수도 있겠지만 반복적으로 나타난다는 것은 학생들의 무책임함을 여실히 보여주는 것이라 여겨져 안타까운 마음이 든다.

최 경 섭
〈법학·2〉

현장의 학문 '농업기상학'

내가하는 공부

윤 진 일
(산업대교수·농학과)

농학(Agronomy)이란 토양·식물·대기로 이루어진 농생태계를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시스템, 즉 농업시스템에 관한 학문이다. 그러나 우리나라에서는 전통적으로 주어진 기후풍토에 알맞는 작물의 육성과 그 재배기술에 치중하여 작물학(Crop science)이 농학의 전부인 것으로 잘못 인식되어 왔다. 최근에 들어서 기후변화와 환경파괴에 따른 농업기술의 취약함이 드러나자 많은 농학자들이 농작물과 주변환경 간의 상호작용에 대한 관심을 갖게되고, 따라서 본래 외미의 총체적 농학으로 되돌아가려는 경향이 나타나고 있다.

농업기상학(Agricultural meteorology)은 이러한 접근방식에 필수적인 도구로서 기상환경과 식물, 혹은 기상환경과 토양간의 관계를 이용하여 농업시스템의 최적화를 도모하려는 농학의 한 분과이다.

농업기상학의 연구를 위해서는 기존의 작물학 관련 교과목 이외에 기상, 토양, 생태, 환경계측, 전산 등 몇가지 배경지식을 더 갖추어야 한다. 이러한 특성 때문에 학부에서의 전공은 크게 중요하지 않은데, 저명한 농업기상학자들의 학문적 배경을 보더라도 작물학 이외에도 생물, 기상, 토양, 물리 등 매우 다양함을 알 수 있다.

어려운 농업현실 극복해야 효율적 연구인력 활용

'농업기상학의 매력은 다른 기초과학과는 달리 서로 다른 분야의 전문지식을 종합적으로 활용하여 그 연구결과가 곧장 현장기술로 이어진다는 점이다.' 예를 들어 기상요소를 구동변수로 한 농작물과 병해충의 생장예측시뮬레이션모형을 작성하고, 이 모형을 이용하여 병충해 관리기술을 확보하면 농약시용량과 횟수를 합리적으로 조정할 수 있다. 또한 영농지대의 기후지원을 정밀분석하면 각지역별로 알맞은 작물 혹은 품종을 선택할 수 있고, 기상정보를 농업에 맞게 적용하면 농업상의 각종 기상재해를 줄이는데 도움이 된다. 최근 전지구적 기후변화에 의한 국내 농업에의 영향이 우려되고 있는데 50년 후의 기후시나리오에 따른 생태계의 반응을 추적하여 재배작물의 육종방향과 작부체계를 최적화하는 일도 농업기상학의 도움없이는 불가능하다.

현재 수행중인 연구과제들도 이와 같이 응용지향적인 면이 강한데 그중 하나는 농작물 병해충 관리시스템 개발에 관한 것이다. 병해충의 발생은 특히 기상과 밀접한 관계가 있는데, 자동화된 기상관측장비를 농장에 설치하여 전화회선을 통해 기상실황을 감시하고, 이 자료를 이용하여 퍼스컴상에서 병해충 발생을 예측하며, 이를 토대로 병충해방제 '전문가 시스템'이 방제 정보를 생산, 전자게시판을 통해 농민에게 전달하도록 되어있는 이 시스템은 퍼스컴 보급추세로 미루어 실용기술로의 정착가능성이 매우 높다. 이 과제에는 식물병리학, 응용곤충학, 농업생태학, 전산학 등 여러 분야의 전문연구인력이 참여하고 있는데, 농업기상학분야의 이 같은 연구들은 영농종사자의 감소와 농산물 수입개방 등 어려운 국내 농업현실에서, 한정된 연구인력의 효율적 결집을 통해 실용성 있는 대응기술을 개발하고자 하는 노력의 구심점 역할을 맡고있다.

말해봅시다

말해봅시다는 경희가족 모두의 참여한 입니다. 학내·외의 크고 작은 문제들에 대한 독자들의 얘기를 대학주보사는 성실히 듣겠습니다. 독자 여러분의 투고를 기다립니다.

◇원고량:200자 원고지 4~6매

◇보낼곳:서울·수원(본사편집실)

대학생활과 예의

상대방 존중하는 언어와 태도 절실

무가치사회속 장유유서 관념 혼란

격변하는 국제정세와 사회변동속에서 정신없이 살다보니 우리는 "우리 자신"을 잃어버린채 살아가고 있는 것이 아닌가 한다.

교수님께 아저씨라는 말이나 선배님이라는 말이 서슴없이 불쑥불쑥 튀어나오며 공식석상에서도 "충장인사 다음 총학생회장님 인사가 있겠다"라는 말이 불쑥불쑥 튀어나오는 것이 오늘의 대학의 현실이 아닌가 한다.

학교 버스안에 강사선생님이 피로하게 서 가시는데 옆에 많은 학생에게 그것이 별로 그렇게 신경이 와닿지 않으며 교수님이나 직원선생님을 학교복도에서 만나봐도 간단한 목례의 인사도 없이 그대로 스쳐가는 것이 오늘의 대학의 현실이라면 무언가 잘못된 것임에는 틀림없다 생각되는데 이를 문제점으로 지적하는 사람이 없는 것 또한 문제가 아닌가 한다.

우리는 지금까지 이세상을 너무 막살아왔고 또 막살아가고 있는 것이 아닌지 요즈음은 조용히 한번 생각해 볼 때라 생각된다.

좀더 잘 살아 보겠다는 의욕에서 기성세대들은 억척같이 그리고 정신없이 살다보니 우리 젊은 세대에게 무엇이 옳고 무엇이 그르며 무엇이 아름답고 무엇이 추한것인지에 대해서 제대로 가르쳐 주실 시간적인 여유나 정신적인 여유가 없었던 것이 아닌가 한다.

그러나 기성인들 역시 이시점에서 깊은 성찰이 필요할때라 생각된다.

그러나 우리는 앞으로도 계속 이렇게 막살아서는 안될것 같다. 돈을 버는 것도 공부를 하는 것도 출세를 하는 것도 결국은 삶이 멋졌던 사람대우를 받기위해 하는것이 아닐까?

그러나 사람이 멋졌 받기위해서는 그 무엇보다도 서로가 서로를 존중하는 "예의"가 필요하다고 본다.

더욱이 한사회의 최고 지성인이 활동하고 있는 대학에서야 더 말할 필요가 없다.

예의를 갖추기 위해서 우리는 돈이나 시간이 필요한것도 아닌데 예의를 우리는 너무 어렵게 생각하고 예의는 특별한 사람들만이 지켜야 되는 것으로 생각하고 있는것 같다.

예의를 갖추고 지키기 위해서는 우리 모두의 관심과 의지만이 필요할 뿐이며 그저 일상생활에서 생활화하는 것이 필요할 뿐이다.

예의란 결코 그렇게 어려운 것이 아니다. 예의란 한마디로 상대방에게 불쾌감을 주지 않고 즐거움과 편안함을 줄 수 있는 언어와 태도와 행동을 의미했다.

우리모두 서로에게 즐거움과 편안함을 줄 수 있는 예의바른 경희인이 되도록 노력해 보는 것은 우리 모두에게 가치있는 일이라 믿는다.

장 일 순
〈학생생활연구소 소장〉

알림터

교수동정

김진우교수 호주행

【서울캠퍼스】▲유명철(의과·의학)교수=지난 20일부터 오는 27일까지 화회참석차 중국방문 ▲김진우(의대·의학)교수=지난 25일부터 오는 30일까지 화회참석차 호주방문 ▲김광호(한의대·한의학)교수=오는 27일부터 내달 2일가지 학술교류차 중국방문 ▲박기안(정경대·경영)교수=오는 28일부터 내달 1일까지 학술 세미나참석차 중국방문 ▲배태경(의대·의학)교수=오는 11월 1일부터 7일까지 학회참석차 인도네시아방문

【수원캠퍼스】▲김정모(사회과학대·무역학)교수=오는 28일부터 11월1일까지 학술회의 발표차 중국방문

분 실

습득자 본사편집실로

【서울캠퍼스】◆학생증=▲한종호(가관·92) ▲임지연(의상·92) ▲유한천(한의예·2) ▲홍순만(체육·91) ▲김종림=체신부 온라인 전자 종합통장

【수원캠퍼스】◆지갑(주민등록증, 학생등, 도서대출증)=장만중(환경,3) 학생회관 도서관에서 ◆적색지갑(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허정환(임학·3) 강남스쿨버스안에서

동 기

등기물 총무과로

【서울캠퍼스】▲조영선(국문·4) ▲이용규(국문·4) ▲김주영(법 ▲김은희(정외·1) ▲이진화(신방) ▲이원섭(경제·2) ▲김영철(무역·2) ▲홍성례(가관·4) ▲김영하(가관) ▲유정숙(식영·1) ▲박미라(약학·4) ▲김삼용(기악·2) ▲서희원(기악·3) ▲박은혜(무용) ▲최나선(체육·1) ▲최경환(야구부) ▲윤형식(삼의원 306) ▲김정숙(삼의원222) ▲이찬호(삼의원202)

【수원캠퍼스】▲최재혁(불문·1) ▲김기민(일문·4) ▲이동근(서반아어·1) ▲최순철(물리·1) ▲문병훈(물리·4) ▲전혜진(사회·2) ▲윤형식(유전) ▲박성윤(유전·3) ▲우경희(우주) ▲오진화(우주) ▲천대원(우주과) ▲김현수(기계·2) ▲배순철(섬유·3) ▲김윤영(섬유) ▲권오준(화학·3) ▲이태형(전자·1) ▲이창원(전산·1) ▲최상현(토목·3) ▲김낙영(토목·3) ▲김기택(전산) ▲신동관(임학) ▲이우점(식품) ▲한동섭(산업공·3) ▲박일섭(조경·3) ▲이승훈(체육·1) ▲최병섭(애지원303)

동문모임

조대부고 동문회

【서울캠퍼스】▲선덕·염광=오는 28일 오후5시 동해반점 ▲장훈·혜원=오는 30일 오후6시 유림회관 ▲재경대구 오성고 총동문회=오는 11월1일 연세대학교

【수원캠퍼스】▲순천고, 순천여고=오는 27일 오후5시30분 광대휴게실 ▲부산진고, 부산진여고=오는 30일 오후5시30분 광대휴게실 ▲조대부고=오늘 오후 5시30분 외대식당 ▲마산 중앙고=오는 28일 오후 5시30분 광대 휴게실 ▲서라벌고=오는 30일 오후 5시 외대앞 야외 휴게실

정외과 아유회

정외과 학생회는 오는 31일 수락산에서 교수·학생 아유회를 갖는다.

이번 아유회에는 교수·학생, 선·후배간의 친목도모와 정외과의 발전방향에 대한 토론이 있게 된다.

능동적인 행동파의 이미지로 변신하십시오 — 빌트모아

DRESS FOR SUCCESS

이렇게 입으면 성공한다!

면접날, 친구들을 만나보면 어느때와는 다른 얼굴과 어색한 복장들을 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 더 깔끔하고 자신있는 용모를 연출할 수있을까요?

당당한 남자의 모습으로 면접관의 마음을 사로잡고 싶은데…

자, 활기차고 능동적인 행동파의 이미지로 변신하십시오. 남자들의 정장이란, 대개 색이 아닐고 디자인이 단조롭기에 누구나 바숫해보이기도 쉽지만, 조금만 센스를 발휘하면 달라집니다. 특히 면접날엔 자기가 선택한 직장의 분위기를 잘 파악한 후 수트를 선택하여 와이셔츠와 넥타이로 멋지게 마무리하는 것이 요령입니다.

금융계 — Navy Suit를 골랐습니다.

깨끗한 첫 인상을 주는 Navy Color 수트. 면접을 위해선 2개트형의 싱글수트에 레귤러 칼라의 와이스 그리고 레귤럴형 스트라이프의 넥타이가 잘어울립니다. 검은 구두나 밤색구두에 화색, 검은색, 갈색의 양말로 마무리하세요.

언론, 방송, 광고계 — Brown-suit를 골랐습니다.

산뜻하면서도 세련된 분위기를 요하는 면접날엔 비지니스 수트의 기본이라고도 불리우는 베이지색이 정답.

짙은 베이지나 블라운색의 서스트 정들이고, 역시 비라운색이 섞인 넥타이에 갈은색구두나 밤색구두라면 침착하면서도 사프한 이미지가 완성됩니다.

대기업 — Grey-Suit를 골랐습니다.

회색은 다른 색과의 조화가 쉽고, 특히 조끼 등 겹들인 쓰리피스 스타일이 돋보이는 아이템이지만, 면접날인 만큼 단정한 프리페이드를 선택드립니다.

흰색이나 하늘색 와이셔츠에, 자주색 바탕의 원 스트라이프넥타이, 혹은 은은한 색조의 페이즐리 넥타이로 마무리하세요.

키가 작은 경우엔

키가 커 보이는 스트라이프와 베이지나 은회색, 화색, 중간톤의 갈색, 회색 등 밝은 색이 체형을 보완해 줍니다. 표면에 약간 털이 있는 부드러운 소재를 골라 하의보다는 상의에 포인트를 주는 디자인을 권라 입으세요. 넥타이는 페이즐리, 스트라이프나 반복되는 긴 베열 문양이 좋습니다.

마른 경우엔

부드러운 소재와 강한 무늬의 조화가 볼륨감을 줍니다. 색상은 밝은 갈색이나 베이지, 밝은 청색, 밝은 회색이 적합하고 선명한 체크보다는 굵은 줄무늬나 굴레체크 같은 분명한 무늬가 좋습니다. 넥타이는 파도한 색상의 큰 페이즐리나 물결 프린트 무늬를 매들을 굵게 하여 매어 보세요.

체격이 큰 경우엔

몸에 딱 맞는 옷을 입으면 체형이 그대로 드러나므로 짙은 색상의 통상한 옷을 여유있게 입도록 신경 쓰세요.

특히 상반신이 굵은 경우엔 하의 보다 짙은 색상의 상의로 결점을 커버할 수 있습니다.

선명하고 작은 체크나 둥 포인트 칼라셔츠, 버튼다운셔츠에 적은 물방울이나 페이즐리 넥타이로 마무리하세요.

배가 나온 경우엔

정상적인 벨트 위치를 파해 결점을 보완하도록 합니다. 정상에서 위쪽으로 올라붙인 다리가 짧아 보이고, 허리도 안정적으로 보입니다.

반대로 벨트 위치를 내리면 활동적인 이미지가 생기면 완안해 보입니다.

어두운 색상의 더블 브레스트나 쓰리버튼 싱글 수트에 체크 무늬가 어울립니다.

어깨가 좁은 경우엔

어깨가 좁아 당당함을 잃기 쉬운 체형엔 밝은색계열의 옷이 상반신을 넓어 보이게 도와줍니다.

어깨 패드로 보정해 주는 것도 현명한 방법이며, V존을 넓게 한 정장 트레드라인의 아이비룩수트가 잘어울립니다.

구두와 양말

구두는 디자인보다는 신고 있기 편한것이 현명하며, 색상은 검정색과 갈색이 기본색입니다.

양말은 옷과 톤 맞는 짙감을 고르도록 하며, 흰 양말을 피해 신사복의 색상과 잘 맞는 신한 색의 두자나 무늬를 배치시키도록 신경쓰세요.

신사의 정장은
일정한 형식을 따른 마음과
캐릭터의 표현입니다.
– J. P. Foster

행동파 활동정장

BILTMORE

■ 빌트모아 취급매장(서울·경인지역)

■ 직매장 ◆중부로1A/ ☎755-7365 ◆신세계/영등포:676-1234 ◆롯데/73-7160 ◆롯데/영등포:670-8435 ◆롯데월드 412-5022 ◆신세계(이마트)/988-6140 ◆미도파 754-2222 ◆63쇼핑/784-6133 ◆뉴코아/535-3444, 535-8444 ◆신세계 775-4777 ◆미도파/상계:932-5357 ◆고려도 562-2576 ◆동방 775-1234 ◆건영 949-0334 ◆영동(점) 544-9950 ◆코엑스 568-3677 ◆서니텐 411-8342

■ 특약점 ◆면목 433-4384 ◆신설동 2-58/8 ◆반포 1945/494-4719 ◆수원(0331) 58-2383 ◆안양 (0343) 68-8969 ◆부천 (032) 522-1554 ◆내동 (032) 762-8900 ◆인천 (0333) 81-3132 ◆부평점 (032) 93-8817 ◆광덕 (0333) 52-6217 ◆안수동 (032) 465-1234 ◆VIVA/ 점 : 795-4100 오 : 3427 ◆진로백화점 587 5194 ◆목산소비 475-4800 ◆해태마트 428-1221 ◆강남한만 420-7714 ◆이마트(하계점) 960-2222 ◆서울대 889-9596 ◆연신내 355-1861